

## 텔레매틱스 표준화포럼

국내 텔레매틱스는 2001년 민간기업이 상용화한 이래 각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야흐로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텔레매틱스 시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텔레매틱스 시장은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텔레매틱스 표준화는 유관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텔레매틱스산업협회(KOTBA)에서 운영하는 텔레매틱스 표준화포럼이 민간 주도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고, 단체 표준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내의 텔레매틱스 프로젝트그룹(PG310)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실표준화 단체인 텔레매틱스 표준화포럼은 국내 유일의 텔레매틱스 사실 표준화 단체로 국내 표준 활동 뿐 아니라 국제 표준단체들과의 단일 접점을 통한 교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되었다.



임종태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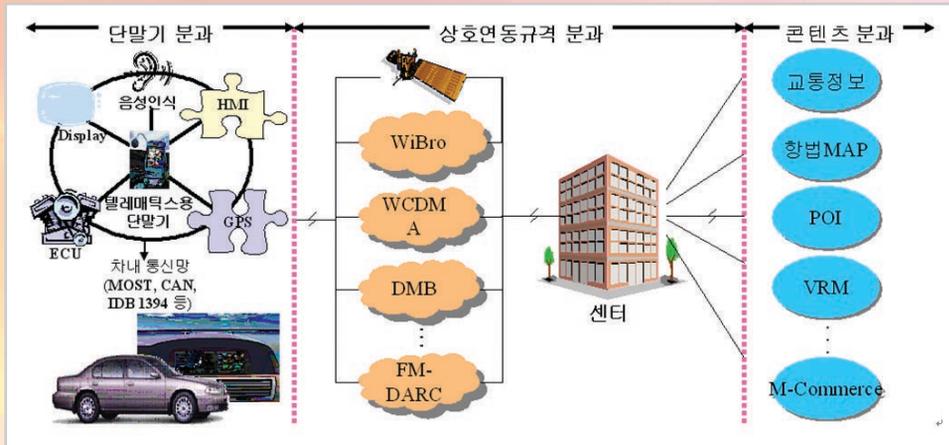
### 표준화 추진 전략

현재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초기 텔레매틱스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몇몇 자동차 OEM사와 이동통신사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기술개발과 표준의 제정은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과 참여도 저하를 가져와 사실상 표준화 추진의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 또한, 텔레매틱스는 복합 산업이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보다는 기존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총망라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텔레매틱스만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 하기에는 비능률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는 기존 유관기술의 표준과 호환성을 가지며 다양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개방 표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술과 텔레매틱스를 이루는 각 분야의 기술 표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산업의 표준화 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과제와 연계하여 표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표준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 시장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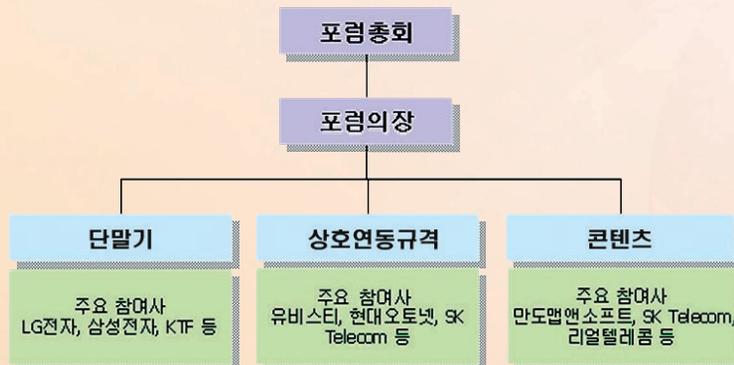
텔레매틱스 서비스 생성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크게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단말기 부분, 콘텐츠를 생성하는 부분, 콘텐츠의 저장 및 가공과 전송되는 연동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표준 제정을 위해 각 부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포럼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말기, 상호연동규격, 콘텐츠의 3개 분과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의 범위 및 분과 구분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은 연 2회 포럼 총회를 개최하여 포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뿐 아니라, 각 분과에서 하는 표준 업무를 파악하고 분과 간 표준 영역을 구분하여 확실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럼 의장은 총회를 주관할 뿐 아니라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단체 표준 및 국가 표준제정단체에 상정, 나아가 국제 표준에서도 포럼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포럼의 의견 및 표준안을 국제 표준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 구성도

## 주요활동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은 앞서 언급한 연 2회 총회 개최 뿐 아니라 매월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총 3건의 포럼 표준 제정 및 TTA의 단체표준으로도 상정되었으며, 6개의 표준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포럼은 텔레매틱스 관련 용어 정의 및 국제 텔레매틱스 표준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LBS 표준화 포럼, 텔레매틱스 자동차 포럼과 같은 국내 유관 산업의 표준화 기구 및 해외 표준화 기구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제 1회 국제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텔레매틱스 표준 활동 및 사업 연계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외 강사로는 유럽의 ETRICO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Gate Space의 CEO를 모시고 GST(Global System for Telematics)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텔레매틱스 단말기, 플랫폼, 차량 내 네트워크 등 텔레매틱스를 구성하는 각 기술적 부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포럼은 국내 활동뿐 아니라 해외 교류 및 협력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개최되었던 텔레매틱스 Roadshow를 통해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및 산업 현황, 표준화 활동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해외 텔레매틱스 표준화 기구인 AMI-C, CVTA, 중국의 Navi forum 등과 MOU를 맺어 협력체계를 구축,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6년은 포럼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아 올해 4월에는 ITU-T의 텔레매틱스 전문가 그룹인 APSC<sup>1)</sup> 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여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향후 계획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텔레매틱스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텔레매틱스 표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텔레매틱스만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가 없어 표준 활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표준은 국내외 기술개발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표준화 역량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텔레매틱스 분야는 이동통신 등 세계 수준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은 표준의 실용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된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포럼의 활동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준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텔레매틱스 표준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IT 강국으로써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TA**



1) APSC TELEMOV (Advisory Panel for Standards Cooperation on Telecommunications related to Motor Vehicles)